

북한 기도회

2024년 5월



1. 남북관계와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은 새해 들어 남한을 같은 민족이나 통일의 대상이 아닌 적대적 두 국가와 교전국 관계로 규정하고, 선대로부터 이어져 내려 온 통일에 대한 방침을 전면 폐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남한을 위협하여 미국을 압박하는 전략적 움직임으로 해석합니다. 앞으로의 한반도의 평화, 남북관계, 그리고 통일에 대한 많은 기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반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핵전략을 위해 버려진 통일이 오히려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되어 복음적 평화 통일의 성취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 남과 북이 다시 하나가 되고 주님께 쓰임 받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2. 강제 복송된 신자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23년 10월 중국에서 복송된 탈북자들 중에 성경을 접하거나 기독교 교리에 대해 들었다는 기록이 있는 사람의 경우 가차 없이 정치범수용소로 보내졌다고 북한 전문 매체 데일리NK가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우려했던 바와 같이 신앙을 가진 탈북자들이 정치범으로 간주되어 가혹한 처벌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해당 매체는 또한 소규모 복송이 여전히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복송된 신자들과 강제복송 중단을 위한 기도가 특별히 요청됩니다.

탈북자 강제 송환이 중단되고 붙잡혀 있는 탈북자들에게 살 길이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신앙을 가진 탈북자들, 특별히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간 이들의 안전과 안위를 위해 기도합시다. 북한의 기독교 박해가 하루 속히 중단되도록 기도합시다.



3. 북한에 억류된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김정욱(2013), 김국기(2014), 최춘길(2014) 선교사와 탈북민 출신 김원호(2016), 함진우(2016), 고현철(2016)씨, 그리고 조선족 사역자가 억류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억류된지 10년이 지나고 있지만, 이들의 구명을 위한 교계의 각급 단체의 성명서가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있으며 한국교회가 함께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최춘길 선교사의 아들 최진영씨가 언론을 통해 석방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이들 갇힌 선교사들을 잊지 않고 계속 기도하게 하시며 갇혀 있는 선교사님들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하심을 얻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이들이 하루빨리 자유함을 얻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4. 해외 북한선교현장의 안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러시아에서 탈북민 사역을 하던 백 모 선교사님이 러시아 정보기관에 의해 체포되어 간첩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인이 러시아에서 간첩 혐의로 체포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백 선교사는 2월 말 모스크바로 이송돼 수감 중인데, 러시아 법원은 6월 15일까지 간첩 혐의를 조사하겠다고 합니다. 러시아에서 간첩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10~2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북러 관계 밀착으로 해외 북한 노동자와 탈북자 사역의 위축 우려가 높아지던 중에 발생한 이번 사건은,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는 해외 북한 선교 현장에 대한 우리의 기도가 절실함을 일깨워줍니다. 체포된 백 선교사님의 안전과 무사 귀환을 위해 기도합니다. 또한 선교사님들의 안전한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5. 북한의 다음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최근 북한은 교육에서 출신성분보다도 경쟁과 실력주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학을 나오면 사회적으로 더 나은 직업과 지위를 가질 수 있다 보니 중학교 때 부터 대학 입학에 유리한 제1중학교 진학을 위한 사교육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형편이 넉넉치 못하거나 시골 지역의 학생들은 빈부에 따른, 그리고 지역에 따른 교육 환경의 불평등이 심화되어 북한의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교육 환경이 개선되어 학생들의 부담이 경감되고 물질로 인해 상처받는 학생들이 생기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또한 교육 영역에서 출신 성분의 영향력이 약화되고 주민 의식 수준이 향상되는 가운데 북한 사회의 긍정적인 변화가 촉진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6. 북한의 우상화 교육과 반기독교 교육의 중단을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의 어린이들은 탁아소 시절부터 김일성가문 우상화 교육을 받습니다. 북한의 공교육 내용을 살펴보면 유치원으로부터 고급중학교(한국의 고등학교에 해당)에 이르기까지 과목을 가리지 않고 김일성 일가의 우상화, 남한과 미국에 대한 증오를 부추기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북한의 아동문학을 보아도 남한의 정치지도자에 대한 매우 수위 높은 욕설이 여과 없이 실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와 선교사들에 대한 악의적인 묘사도 여전합니다.

학생시기 인격이 한창 발달할 시기에 행해지는 이러한 증오, 우상화 교육은 학생들의 인격발달과 건강한 정체성 형성에 큰 장애물이 됩니다. 북한의 우상화교육과 증오교육이 하루 속히 중단되도록, 그리고 북한의 어린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기도합니다.



7. 북한 주민들의 민생 안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랜 추위를 끝내고 다가오는 따뜻한 봄은 누구에게나 반갑지만 식량난에 시달리는 북한 주민들에게는 식량부족이 고조되는 어려운 시기입니다. 지난해 봄에는 북한 각지에서 심각한 식량난 소식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지난 가을 추수가 예년에 비해 나아졌고 러시아를 통해 식량을 공급받는 등 개선의 움직임이 있지만 올해도 식량난에 대한 우려는 여전합니다. 특히 절대적인 생산량의 문제보다도 시장을 통한 식량 거래 금지 및 양곡판매소 운영에 따른 유통 상의 문제가 큰 것으로 전해집니다. 북한 주민들이 춘궁기의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그리고 식량 정책이 개선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또한 어려움에 처한 북한 주민들을 돕기 위한 본 선교회를 비롯한 여러 선교단체와 NGO의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8. 북녘을 향한 라디오 복음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19 대유행은 끝났지만 여전히 북한의 국경 통제로 인적 왕래가 중단되어 있는 가운데 라디오 방송 사역은 막힌 담을 넘어 북녘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오픈도어선교회는 극동방송, 북방선교방송, 생명의 강 방송과의 협력을 통해 북한의 성도들을 격려하고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새해를 맞아 양질의 방송 프로그램들이 제작, 송출될 수 있도록 방송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기상 악화나 방해전파 등으로 인한 청취 장애가 최소화 되도록 기도합니다. 특히 북녘의 주민과 성도들이 강화되고 있는 비사회주의·반사회주의 단속 열풍을 잘 피해서 안전하게 방송을 들으실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주기도문

새번역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